



봉침요법강좌

전립선염(前立腺炎)과 봉료(蜂療)

발표자 = 高相基, 韓國蜂療蜂針法研究會 會長)

(이 논문은 한국봉료봉침요법연구회 제18회 연수회에서 발표한 것임)

4. 치료(治療)

① 전신요법(全身療法)

만성전립선염은 환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오래된 병에 속하므로 국부 치료만으로는 잘 치유되지 않는다.

㉠ 벌침을 발침하여 핀셋으로 벌침을 아주 짧게 잡고 전신 경락의 유주에 따라 가볍게 산자한다.

㉡ 위생적인 섭생이 필요하다.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먹고 매일 화분을 큰 스푼으로 3스푼 이상 복용한다.

㉢ 술이나 커피 등 자극성이 있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수분은 비교적 많이 취하고 변비가 되지않게 주의한다.

② 항생제의 남용 방지

항생제의 남용을 금한다. 설파제나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성전립선염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에만 의존하는 치료는 절대로 완전한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항생제가 전립선에 유효할 정도로 농축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생제 남용 보다는 프로폴리스를 꿀물 또는 냉수 150cc에 프로폴리스 20-30방울 정도 타서 하루 3~4회 복용하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

③ 원발성병소요법(原發性病巢療法)

전립선염 치료에 앞서 원발성 병소로 생각되는 치아(齒牙), 편도선(扁桃腺)등을 먼저 치료하고 상부요로

(上部尿路)에 감염이 있으면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④ 봉료봉침치료(蜂療蜂針治療)

㉠ 만성전립선염 봉침치료의 주 혈은 신유(腎俞), 관원(關元), 삼음교(三陰交), 음능천(陰陵泉), 회양(會陽), 중완(中腕)으로부터 곡골(曲骨)까지의 임맥(任脈) 피부와 양쪽복부를 따라 내려가면서 봉침을 산자(散刺)한다.

㉡ 낭습(囊濕)이 심할 때는 낭습부터 먼저 치료해야 한다. 낭습이 심할 때는 질변(秩邊), 수도(水道), 천주(天樞)를 가하고 고환전체에 봉침을 산자한다.

㉢ 비신(脾腎)의 기가 허할 때에는 명문(命門), 비유(脾俞)를 가하고 위(胃)가 좋지 않을 때에는 태계(太溪), 족삼리(足三里)를 가한다.

㉣ 이침(耳針)혈은 전열선(前列線), 방광(膀胱), 신문(神門), 내분비(內分泌), 피질하(皮質下)를 취하고 이혈 등에 봉침을 가볍게 산자한다.

㉤ 족태음방광경배유혈대(足太陰膀胱鏡背俞穴帶)에 봉침을 산자한다.

㉦ 국소요법

전립선내의 감염물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맞사지해줌으로써 고름, 균, 배선관을 막고 있는 오물을 배설시킨다. 맞사지 횟수는 처음에는 2~3일에 한번씩 하고 좋아지면 1주일에 한번 한다.

이와 동시에 회음부(會陰部)에서 귀두 아랫부분까지



의 정중선(正中線)에 봉침을 발침하여 약 1cm 간격으로 유침(留針)한다. 이러한 치료를 2~3개월 계속하여도 전립선액의 소견이 좋아지지 않으면 1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다.

⑤ 예후

만성전립선염의 예후는 급성보다 훨씬 나쁘다. 장기간 감염을 일으킨 전립선은 정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만성전립선염의 치료가 되었는지의 치유 판정은 ① 자각증세가 없어야 하고 ② 전립선액 내의 백혈구 수가 5~10/H.P.E 이내로 줄며 ③ 소변속에 뇨사(尿絲)가 섞

여 나오지 않고 ④ 전립선액 염색이나 배양에서 세균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성전립선염은 50% 정도는 치유되고 25%는 개선되며 그 나머지는 오랫동안 증세가 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봉료봉침요법으로 치료하면 물론 환자가 봉료봉침치료 방침에 순응하고 인내력을 발휘하여 꾸준히 치료하면 100%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봉료봉침요법의 특징이다.

(다음호에 계속)



아까시나무 홍보활동 전개

아까시나무 연구회장(박용구)은 지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아까시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잘 알지 못했던 아까시나무의 여러 장점을 알리기 위하여 아까시나무 회보를 언론사 99부, 임학계 40부, 기타 행정기관 41부를 전국에 배포했으며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있는 잡목이 아니라 그 환경적,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수종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16일 정부 대전청사 산림청에서 개최된 산림청장과 임업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에 박용구 연구회장이 참가하여 아까시나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산림청장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통보 받은바 있다.

또한 5월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철곡군 아까시아 벌꿀축제 1주년 기념행사장에 아까시나무 목재를 이용한 각종 가구 전시품을 선보여 아까시나무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행사에서 아까시나무 홍보용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여 시민들로부터 아까시나무의 인식제고에 기여했다

따라서 아까시나무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자 하여도 자금난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있으므로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회비납부 및 성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젖줄인 아까시나무를 보존·증식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수 있으면 한다.

회원 연회비 납부안내

양봉협회는 회원의 회비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회비납부 기간은 당년 연말까지이며 소속지회나 사무국 예금수납구좌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양봉협회)

◆농 협 : 027-01-472474

◆한빛은행 : 276-04-100192

지회 전화 번호

서울지회장(이종택) : 02-2213-2411

경기지회장(김유채) : 031-666-4516

강원지회장(박순기) : 033-372-9312

인천지회장(유영은) : 032-422-0847

충북지회장(이명준) : 043-273-6055

충남지회장(배경수) : 041-561-2215

대전지회장(박기문) : 042-636-9896

전북지회장(이신호) : 063-231-0824

전남지회장(장경휴) : 061-522-5768

경북지회장(류무열) : 053-629-9034

경남지회장(한성우) : 055-583-4565

부산지회장(조수도) : 051-523-6023

울산지회장(이성배) : 052-263-0031

제주지회장(양문언) : 064-722-0374